

대행 스님

마음으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심력을 키우세요

울산의 여러분과 더불어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말은 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철 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너희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떠날 때는 너희 몸뚱이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한 철 걸망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놀다가 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네 탓 내 탓을 다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성질 때문에 집안이 홀딱 망하는 수도 있고 파산이 되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일체 만물만생도 역시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물은 그 안에 만 생명을 넣고 굴림을 굴리면서 리드해 나가는데도 걸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면 '아, 물이 말을 하는구나. 물이 나같이 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도 그냥 길을 가듯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 나무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돌이나 산천초목들도 다 살아 있고 움죽거리고 찰나찰나 화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신세계 50%에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도 물질계의 50%와 더불어 같이 상응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모습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살림살이와 동물과 생물, 일체 만물의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만 다르고 모습만 다르다뿐이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니 어디 그게 둘이겠습니까? 만물만생이 다 나같이 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도 나도 모두가 나투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모두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혼자만 높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이 제가끔 높다는 겁니다.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높고 거지는 거지대로 높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제가끔 높으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래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그대로 쉬는 것도 없고 쉬지 않는 것도 없이 여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여래의 집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의미는 만물만생의 생명, 그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자체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 생명의 근본이 있고, 말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달하면서 돌아가니 모두가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없이는 세상에서 창조력을 기를 수도 없고 창조를 해낼 수도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잘못됐든 잘됐든 부딪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아서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애고든 병고든 천차만별의 문제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밖으로만 찾습니다. 명이 짧다 하면 칠성님한테 빌고, 가난하고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 들었다 하면 약사보살 찾고, 물에서 위험할 듯하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 위험할 듯하면 지신을 찾고…. 여러분, 한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오는 대로 어떻게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빕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나지 않으며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발견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 이렇게밖엔 말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 병고가 오면 '야, 내 깊은 한마음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병고도 나온 거니까 낫게 하는 것도 거기 아닌가.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고 거기 놔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또는 명이 짧다 하면 안에서 칠성이 됩니다. 금방 화해서 칠성 부처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한마디 할까요? 가정에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이 됐다가, 금방 형이 됐다가,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왜 그래?" 하고 그 행동과 말과 뜻이 그대로 남편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도 "아버지!" 하면 금방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대로 나투는 것입니다.

어떠한 애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놓을 때는 자동적으로 산신도 되고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에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약사가 되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놓을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그 한군데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굴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름해서 수레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가 되돌려 놔야 됩니다.

내가 한번 비유를 해 볼까요? 오신통에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